



한국육아지원학회
회장 이 기 숙

인사의 말씀

우리나라 영유아들의 밝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정진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인사드립니다.
한국육아지원학회는 한국에 사는 어린이와 부모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론,
실천, 토의와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하여 지난
2005년 6월 10일에 창립되었습니다.

본 학회에서는 현대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시대의 미래지향적인 육아지원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하여 앞으로
관련 학계 전문가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창립 첫 번째 사업으로 우리나라 육아지원 정책의 과제를 분석해 보고
우리 사회의 육아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연결하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
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국 육아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
1차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춘계학술대회로는 “건강한 가정, 건
강한 아이 함께 키우기 : 자녀양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각국의 자녀양육지원을 분석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학술대회는 춘계학술대회와 추계 학술대회를 연간 2회 개최하고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소모임의 정례화, 유아교육기관등
의 현장방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육아지
원학회에서는 학술지 「육아지원 연구」를 연간 2회 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메일을 통한 뉴스레터와 연구 동향등의 정보를 지속적 회원들에게 보내드리고
자 합니다. 이와같이 한국 육아지원학회는 육아지원에 관련된 각 분야의 연구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한국 육아지원을 위한 이론 정립 및 현장교육에 이바지하고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 학회가 우리 사회의 육아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연결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유아기는 인간 발달의 기반을 형성하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 받은 경험의 양과 질은 이후 성장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아교육은 국가인적자원 개발의 출발점으로 만 5세아를 초등학교로 보내는 개정안이 포함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5년 11월 7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교육기본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을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초등학교 취학의무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면서 조기취학제도를 삭제하는 것과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6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 ‘고등학교 수업연한을 3년에서 4년으로 하는 것’등이 포함되어있다.

학제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바람직한 유아기 인적자원 양성을 위하여 최근 정부나 국회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취학연령 하향화를 포함하는 학제개편 방향에 대하여 만5세아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타당성, 유아교육기회의 평등성 문제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바람직한 유아교육학제 개편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학제의 개편은 교육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하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학생을 위한 변화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제의 개편방향은 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인간상을 육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인 기본방향 설정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유아의 발달과 교육내용, 교수방법 등에 있어서 타당한 원칙들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취학연령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동의 성장·발달이 종래보다 빨라진 점을 감안하고, 사회진출을 조기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고 있다. 그러나 취학연령 하향화로 인하여 어린 유아들을 학습 경쟁체제에 더 빨리 몰아넣는 것은 아닌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6세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왜 취학연령 하향화를 학제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여러 나라에서는 왜 유아교육체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진지한 고찰을 통하여 학제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만5세아 초등학교 취학은 성장·발달단계에 적합한가?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됨으로써 만3~5세 유아들이 놀이와 활동중심의 유치원 교육을 보장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학연령을 낮출 경우 만5세아 유아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입식, 교과서 중심의 초등학교로 편입되어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유아교육법에서는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유아에게 그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다양한 보호과정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교육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만3~5세 유아들이 발달특성에 맞는 적합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5세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돕는 적합한 교육과정은 무엇인가?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만5세아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은 무엇인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1)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의 차이점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은 어떻게 다른가? 초등교육은 기본적으로 아동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과정 이수(cover the curriculum)’에 대한 사항이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교육과정을 각 학년에서 이수하기 위한 교과구분 및 각 교과내용이 담겨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1,2학년)은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

량활동과 특별활동으로 편성되어 있다. 1학년의 교과, 재량, 특별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30주를 기준으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로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1시간의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업시간과 휴식시간이 구분되어 있으며, 수업시간 동안 한자리에 앉아 주의집중을 해야 한다.

초등교육은 교육과정 편성이나 운영 등에 있어서 전체적인 학교체제와 학급별 지도 사항 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자율적 계획 및 운영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이는 교육과정이나 교과, 교과서 등을 고려한 학습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각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내용이나 방법을 교사가 채택하기에 유치원에 비하여 제한적일 수 있다.

유치원 교육은 전인적 성장을 위한 기초교육으로서, 유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는 교육으로, 교육과정은 건강생활영역, 사회생활영역, 표현생활영역, 언어생활영역, 탐구생활영역 등 다섯 가지 생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은 각 영역에서 제시된 교육내용을 유아의 발달정도에 알맞게 적용하도록 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나이에 따라 그 수준을 정하여 지도하여서는 안되며, 교육일수와 시수(時數)도 유아의 연령, 발달 수준, 건강상태, 활동유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1998).

유아기는 아직 집중하여 오랜 시간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교실에 흥미영역을 구성하여 개별적인 흥미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기는 움직이고, 만지고, 관찰하는 등 대·소근육을 움직이는 활동이 적합하며,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을 매우 피곤해하며, 주의집중 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발달특징을 고려하여 가만히 앉아서 듣는 활동보다는 직접 실물을 만지고 움직여보면서 학습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유아교육은 교과별 학습내용이 아닌 생활영역별 학습내용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개별적인 유아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교육계획 및 운영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인간발달의 중요한 전제중의 하나는 발달의 모든 영역, 신체, 사회, 정서, 인지적 영역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보다 어린 유아에게 더욱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어리면 어릴수록 발달에 있어서 개인차가 클 수 있으며, 학습주제나 과정이 유아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될 때 학습효과가 높기 때문에 개인차에 근거한 통합적 접근은 유아교육에서 근본이 되는 교수원리이다.

그렇다면 만5세아를 위한 적합한 교육 방법은 무엇인가? 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의 성숙과 발달은 정상적인 학습과정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단계인 이 시기는 신체조절능력이 아직 미숙하지만 발달속도는 빠른 시기로 유아는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습득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면서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얻은 기술과 경험에 기초한 지식은 유아의 학습과정을 원활하게 해준다.

예를 들면 유아는 신체적으로 성숙함에 따라 자신의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조작할 수 있게 되며 또한 타인의 관점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유아기에는 신체, 정서, 인지, 사회, 언어발달 등 전체적인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초등학교 입학유예자 증가현상

만5세아 조기취학에 대한 학제개편안은 근본적으로 만5세아가 초등교육을 받을만큼 예전에 비하여 성숙해졌고 학습능력이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연령인 만6세에 이른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늦추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연합뉴스, 2005/06/10), 이러한 가정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입학유예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 어린이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초중등학교장이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취학유예 사유를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초등학교 입학유예자의 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9년 적령 아동수에 비하여 입학유예자 비율이 2.9%였으나, 2000년, 3.2%, 2001년, 3.9%, 2002년, 5.0%, 2003년 5.7%, 2004년, 6.5%, 2005년에는 6.8%로 적령아동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비하여 입학유예 아동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초등학교 입학유예자 현황

	아동총수	적령아동수	유예 및 과령아	취학자 총수	취학률(%)	유예 및 과령아 비율(%)
1999	744,732	722,930	21,802	709,399	95.3	2.9
2000	711,575	688,690	22,885	669,609	94.1	3.2
2001	721,417	692,984	28,433	687,047	95.2	3.9
2002	733,967	696,775	37,192	686,315	93.5	5.0
2003	710,708	669,693	41,015	663,100	93.3	5.7
2004	695,006	649,519	45,487	652,538	93.8	6.5
2005	691,550	641,581	46,824	624,511	90.0	6.8

자료 : 초등학교 의무교육 적령아동취학상황(입학상황)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2005/4/1)

어린이들의 입학유예 이유는 발육부진이 61%로 가장 많고 다음이 질병(15%), 해외출국(6%), 연락두절(5%) 순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2005/06/10). 각 초등학교는 입학통지서를 받은 어린이가 질병, 발육부진 등의 사유서와 함께 입학 유예를 신청할 경우 검토작업을 거쳐 이를 승인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육부진’은 대개 부모들이 자녀가 같은 나이의 다른 어린이에 비해 성장이 늦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예상하여 입학유예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학유예 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지만 만5세 조기 취학과 관련하여보면 더욱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선진국들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대부분 만6세로 정하고 심지어 만7세로 하는 나라도 있는 등 만5세 유아들에 대해서는 놀이중심, 활동중심의 유아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만3~5세 유아교육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다 일찍 저출산 문제에 당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나라의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타산지석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아동의 삶을 고려한 질적 정책 수립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국가가 주도하여 유아를 위한 공교육을 구현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1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 보육을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preschool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의 유아교육 정책의 방향은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이고 질 높은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OECD Thematic Review of ECEC Policy, 1999).

혼인율의 저하와 동거 및 이혼의 증가, 저출산 문제 등 현대가족이 공통적으로 겪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이는 프랑스에서는 지속적인 출산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1980년도 출산율 1.9에서 1997년에는 1.7로 감소하였으나, 가족과 고용을 조화시키는 노동시장과의 연계 및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는 가족지원정책으로 2001년에는 1.89로 출산율이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다(심창학, 2003).

저출산 국가의 경험에 의하면, 이들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출산수준 저하로 인한 인구고령화, 노동력 부족, 국가 경제의 침체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투입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은 출산억제보다는 출산증가정책이 용이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김승권, 외, 2002).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저출산으로 인한 결과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유아중심의 학제개편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만5세아 조기취학’은 유아의 발달과 교육에 근거하기 보다는 학령아동 감소나 사회진출시기 단축 등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현상을 기초로 학제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저출산 현상을 먼저 경험한 국가에서도 ‘입학연령 하향화’가 제기된 경우가 있으나, 이를 유아기를 단축하려는 의도로 해석하여 반대한 예를 살펴볼 수 있다(한유미 등, 2005). 대부분의 국가들이 입학연령 하향화보다는 풍요로운 유아기를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유아교육 강화를 통하여 부모와 가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은 발전적인 유아학제개편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령아동 감소 및 빠른 성장발달을 이유로 5세아를 초등학교에 취학시키는 제안보다는 현재 교육법에서의 유치원 교육대상인 3,4,5세 유아들이 공교육의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공. 사립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질 높은 유아교육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학령아동 감소로 인한 초등학교 유휴 시설은 보다 어린 3,4세 유아를 위한 시설이나 방과후 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저출산 시대의 부모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저출산 시대를 사는 유아들에게 가족과 같은 혼합연령학급을 구성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 다양한 연령의 유아들이 함께 하는 놀이문화공간을 구성하는 것, 도덕적 전인적인 발달에 대한 중요성을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 등이 이러한 노력에 포함될 수 있다.

2. 유아교육기회의 평등한 접근을 위한 학제개편 방향은 무엇인가?

1948년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에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 및 기초단계에 있어서는 무상이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교육기회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지만 특히 유아교육기회는 출발점 평등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공교육기회의 보장을 중요시하고 있다. 즉, 국가의 계획과 지원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려는 것이며 복지형 공교육체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학제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교육기회균등 원칙을 실현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유치원교육의 공교육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은 유치원이 개념상으로만 학제로 인정되고 실제적으로는 학제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나정, 신동주, 김재윤, 1997).

실제로 사회계층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 현상은 유아교육에서 발견할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은 그 절대수가 적령 아동을 수용하기에도 부족하지만 지역별 분포의 차이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은 농어촌에 편중된 반면, 사립은 도시, 특히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국공립과 민간 모두 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도시와 농어촌간에 격차가 심하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대부분 사립이나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주로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유아는 취학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취학전 교육기회에서도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장명림, 2004).

이러한 유아교육기회의 불평등문제는 유아교육법의 제정으로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확대 및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5세 무상교육이 200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되고, 만5세 이전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지역간 격차와 기회접근의 불평등으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유치원실태조사보고(한국교육개발원, 2005)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유아는 전체대상 중 14%였으며, 연령별 비율은 3,4세 약 9%, 5세는 19%로 5세 유아에 대한 지원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유아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학제개편안(김영철, 2005)에서는 5세아 교육의 의무화와 무상화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교육의 공교육화 정책의 일환으로 5세아 대상의 유치원 교육을 의무화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편성,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유아교육 및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김영철, p.27).

위의 내용은 의무교육이 교육받을 권리를 강제하여 교육의 기회에 대한 개방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무상교육은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만5세 무상교육 실시를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제개편 논의에서 제시되고 있는 5세아 의무교육, 무상교육은 더 많은 유아들에게 유아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며 이는 실제적으로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하여 확장되고 있다. 여기에서 교육기회의 확대를 5세아를 초등학교에 취학하게 하여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교육의 적기성’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유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가가 중요하다면 동시에 얼마나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는가도 똑같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유아발달과 교육내용, 교수방법 등에서 타당한 원칙들을 존중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점과 특히 어린 유아들을 위한 교육에서는 더욱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3. 유아를 위한 바람직한 학제개편방향은 무엇인가?

첫째, 만5세아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학제개편안은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됨으로써 만3~5세 유아들이 놀이와 활동중심의 유치원 교육을 보장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학연령을 낮출 경우 만5세아 유아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입식, 교과서 중심의 초등학교로 편입되어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만5세아를 조기취학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과도한 교육열기 속에서 유아들이 학습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 및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만5세아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학제개편안은 삭제되어야 한다.

둘째, 만3,4,5세가 다니는 유아학교(유치원)를 초등학교 이전에 다녀야 할 학교기관으로 학제에 포함하여 줄 것을 제안한다.

지식을 창출하고, 재생산할 줄 아는 창의적인 인간 육성은 국가적 사명으로 세계 교육 선진국들은 유아기를 인적자원개발의 기초단계로 인식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등 유아교육 서비스를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아기에는 활동적이고 자율적인 교육환경과 지원을 특징으로 하는 유아교육이 꼭 필요하다.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아’란 만3~5세아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만큼 만3,4,5세 유아들이 질 높은 유아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만 5세아를 초등학교에 취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만3,4,5세가 다니는 유아학교(유치원)를 초등학교 이전에 다녀야 할 학교기관으로 학제에 포함하여 줄 것을 제안한다.

셋째, 3,4,5세 유아를 위하여 무상교육을 통한 유아교육기회 확대를 제안한다.

선진각국의 경우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개방성 추구는 의무성보다는 무상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의무교육이 아니면서도 취원율이 높은 나라는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적 가치 차원에서 의무성이 아니라 무상성을 통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무상교육을 통하여 유아교육 기회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유아교육단계에서는 개인차의 존중,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적용의 필요성 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갖게 되는 교육대상, 내용, 방법 등에서 있어서의 경직성과 획일성 등의 문제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넷째, ‘행복한 유아기,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과 학교의 협력모형이 만3,4,5세를 위한 유아학교(유치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보다 적극적인 가정-학교 협력모형개발을 제안한다.

학제개편 안에는 만5세아의 초등학교 취학은 의무교육혜택을 받게 되므로 유아교육의 실질적인 공교육화가 실현되고, 이를 통하여 가정의 사교육비가 감소된다고 보고 있다. 유아가 보다 어린 시기에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됨으로써 학습에 대한 부모의 부담감은 더 무거워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은 더 커질 수 있다.

만3,4,5세를 위한 유아학교(유치원)에 종일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한 방과 후 시설 등을 확충하여 저출산 시대에 다양한 연령의 유아들이 함께 살아가는 생활교육, 전인교육의 장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만5세아 중 취업모의 자녀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종일반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취학할 경우, 학령아동을 위한 방과 후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유아들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하교시간이 빨라 이들이 오후에 안전한 장소에서 질높은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적, 물적 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에서도 ‘입학연령 하향화’가 제기된 경우가 있으나, 이를 유아기를 단축하려는 의도로 해석하여 풍요로운 유아기를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유아교육 강화를 통하여 부모와 가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행복한 유아기,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과 학교의 협력모형이 만3,4,5세를 위한 유아학교(유치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보다 적극적인 가정-학교 협력모형개발을 제안한다.

1. 2006년 춘계학술대회 안내

- ◆ 일시 : 2006년 4월 29일(토) 9:00~12:50
- ◆ 장소 : 이화여대 교육관 B동 지하 153호
- ◆ 춘계학술대회 일정

시 간	내 용
09:00 ~ 09:30	등 록 사회 : 김정원(한국성서대 영유아보육학과 교수)
09:30 ~ 09:50	개회사 및 축사 이기숙(한국육아지원학회 회장) 이 옥(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09:50 ~ 10:20	주제발표 1. 가정을 지원하는 독일의 자녀양육지원 이길동(계명문화대 유아교육과 교수)
10:20 ~ 10:50	주제발표 2. 가정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미국의 자녀양육지원 이승연(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10:50 ~ 11:30	정기총회 및 다과
11:30 ~ 12:00	주제발표 3. 가족의 자아실현과 아동의 건전육성을 지원하는 일본의 자녀양육지원센터 최영신(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만호(계명문화대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12:00 ~ 12:30	주제발표 4. 가정과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보육정보센터의 역할 권용은(전국보육정보센터협의회장) 박민정(성남보육정보센터장) 우현경(성동보육정보센터장) 이세라피나(고양보육정보센터장)
12:30 ~ 12:50	종합토론 및 폐회 장영희(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 참가방법

- 등록비 : 회원 10,000원 / 비회원 15,000원(자료집 및 다과 포함)
- 입금계좌 : 우체국 012179-01-002995(예금주 : 한국육아지원학회)
- 사전등록 마감일 : 4월 25일(화)
- 사전등록을 하신 경우에만 자료집에 제공됩니다.
- 장소관계로 사전 등록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이메일(ksecec@hanmail.net), 전화(02-3277-2624), 팩스(03-3277-2625)
- 간사 016-9216-0171(유희정)

◆ 회원가입 방법

- 입회비 : 10,000원
- 연회비 : 일반회원 30,000원 / 학생회원 20,000원
- 평생회원 : 400,000원(45세 이상의 정회원)
- 회원입금계좌 : 우체국 012179-01-002884 (예금주 : 육아지원)
- 온라인등록 : [홈페이지 참조](#)

2. 학회활동보고

1) 2005년 창립총회 및 연차 학술대회

① 창립총회

- 일시 : 2005년 6월 10일(금) 17시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111호
- 설립취지 :

1. 현대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시대의 미래지향적인 육아지원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 학계 전문가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함.
2. 한국에 사는 어린이와 부모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론, 실천, 토의와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임.

② 제 1차 연차 학술대회

- 주제 : 한국 육아지원 정책의 과제와 방향
- 일시 : 2005.11.5(토) 9시-17시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 컨벤션홀

2) 제 1대 한국육아지원학회 이사회의

① 제 1차 이사회

- 일시 : 2005년 9월 24일 12시- 15시
- 내용 :
 - (1) 2005년 주요사업 일정보고
 - 연구부 : 제 1차 연차 학술대회 관련
 - 편집부 : 육아지원학회 학회지 관련
 - 홍보부 : 홈페이지 개발, 소식지 발간, 학술대회 기념품 제작 관련
 - (2) 안건
 - 2005년 사업계획 및 심의에 관한 건
 - 학회운영 및 각부 사업계획에 관한 기타 안건

② 제 2차 이사회

- 일시 : 2005년 12월 27일(화) 12시-15시
- 내용 :
 - (1) 주요사업 보고
 - 편집부 : 육아지원연구 출판 관련
 - 홍보부 : 학회 Homepage 개설 (www.edukid.org)
 - (2) 안건
 - 소식지(e-newsletter) 발간에 관한 건
 - 2006년 춘계 학술대회 준비에 관한 건
 - 학술대회 시 Young scholar session을 마련하는 방안에 관한 건
 - Study Tour, 도서출판 관련 건

③ 제 3차 이사회

- 일시 : 2006년 3월 11일(토) 11시-14시
- 내용 :
 - (1) 주요사업 보고
 - 연구부: 2006년 한국육아지원학회 춘계 학술대회 일정(안) 관련, 보육관련 도서 기획 관련
 - 편집부: 육아지원연구 창간호 발행 관련, 육아지원연구 제1호 원고모집 관련
 - 홍보부: 학회 Homepage 운영 관련 (www.edukid.org), e-newsletter 발행 계획 관련
 - (2) 안건
 - 연구부: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에 관한 건,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개최

에 관한 건

-편집부: 연2회(4월,10월) “육아지원연구” 발간에 관한 건

-홍보부: e-뉴스레터 발행에 관한 건, 신규회원가입 정보입력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

3) 학술지 발간

① 창간호 발행

- 2005년 12월 31일 한국육아지원학회 학회지 <육아지원연구> 창간호 발간

② 2006년 <육아지원연구> 1권, 1호 발간 진행

- 2006년 3월 25일 :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을 위촉 받음

- 2006년 4월 2일 : 투고된 논문 심사를 의뢰함

- 2006년 4월 10일 : 논문 심사위원들께 논문심사표를 받음

- 2006년 4월 30일 : <육아지원연구> 1권 1호 발간 예정

3. 회원동정

1) 부임

김혜경 회원님 : CTS영유아문화원 본부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조성연 회원님 : 수원여대 아동보육과 교수로 부임하셨습니다.

2) 보직발령 및 소속변경

정미라 회원님(경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께서 경원대학교 사회교육원장으로 보직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김소양 회원님(김포대학 유아교육과 교수)께서 사회복지과로 소속학과를 옮기셨습니다.

3) 연구

이집로, 강숙현, 이민경, 김진화, 손경화(순천제일대학 교수) 회원님들께서 “영유아보육실습론” 수정판을 교육과학사에서 출간하셨습니다.